

2018 SOA Asia Pacific Symposium

주제 : IFRS17 시행에 대비한 감독방향

축 사

2018. 5. 24(목), 09:25(15분)

포시즌호텔(광화문) 00층 00홀

□ □ □ □ □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박종수입니다.

먼저, SOA Asia Pacific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SOA Asia Pacific 심포지엄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계리, 투자, 리스크관리 등 보험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Ms. Susan Blanck을 비롯하여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발표를 위해 또는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아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한국 금융감독당국을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심포지엄 주제

보험계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Making a Difference - Shaping a New

Future"라는 테마로 보험산업의 미래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험산업의 혁신과 IFRS17은 현재 보험산업이 당면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주제들입니다. 특히 동적 해지 모델링 (Dynamic Lapse Modeling)이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하에서의 헤지전략 등은 IFRS17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보험산업에도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 계리사 사회의 정보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IFRS17을 중심으로)

IFRS17 시행의 의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작년 5월 IFRS17 기준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을 결정하였던 국가로 IFRS17을 '21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 평가, 수익 인식기준이 전면 개편되어 보험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 방식의 부채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다양한 옵션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저축요소가 매출에서 제외되는 등 수익인식기준이 바뀌면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곧 단순한 회계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상품개발, 자산운용, 보험영업, 리스크관리 등 보험회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보험산업이 선진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

보험회사 과제

이렇듯 IFRS17은 보험회사에 엄청난 부담이지만, 보험회사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인 만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IFRS17기준에 따른 결산 준비입니다. 회계처리 등 결산을 위한 전산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보험업계는 시스템 개발 수요가 집중되어 컨설팅회사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인프라 구축은 보험회사 결산 뿐 아니라 회계정책 결정을 위한 자체 분석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원칙중심의 IFRS17에서 회사가 회계정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무 상태나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 IFRS17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과거 □ 금리로 판매한 보험계약이 많은 생명보험회사는 IFRS17 시행시 보험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2~3년의 남은 기간 자본이 부족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경영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IFRS17에서는 보장을 수반하지 않는 저축요소가 매출에서 제외되어 외형중심으로 성장하는 전략은 한계

가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재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관리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켜야 합니다. 보험부채가 금리 등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움직이게 되므로 자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합니다. 금리리스크 관리를 예로 들면, 일부 회사는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표준방법인 듀레이션갭(gap)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체 변동성 관리를 위해 실질을 보다 잘 반영하는 시나리오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계리사의 역할 및 위상 제고

IFRS17의 시행은 보험산업 전반의 Value-Chain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험전문가로서 계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계리사에 기대되는 역할이 책임준비금 산출 등 계리적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재무기획, 자산운용, 위험관리, 영업지원 및 경영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에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분

석능력을 강화하고 경영진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보험회사내에서 그 위상을 보다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가단체로서 계리사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IFRS17은 원칙중심의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을 제기됩니다. 이에 호주 계리사회의 경우 계리사들이 IFRS17 시행과 관련된 이슈들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4대 대형 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Task Force를 만들고, Information Note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리사회가 주도하여 계리사들이 이슈를 공유하고 토의하며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부채 산출결과에 대한 검증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검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계리사의 양적 확대도 필요하지만 계리사의 전문성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가 계리사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향후 감독 방향

감독당국도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감독제도 개편을 추진중입니다. IFRS17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보험감독자협회가 추진중인 자본규제 등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지급여력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와 함께 건전성감독과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해 감독회계체계를 정비중이며, 보험회사의 자체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독제도는 감독정책상 필요에 의해 도입되지만 보험회사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험업계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폭넓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내 보험산업이 한 차원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향후 감독제도를 개편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논의된 내용 중에 감독제도 개편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는 제도 시행까지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았습
니다. 새로운 회계기준 및 지급여력제도는 당장 보험회사에게 현실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
을 통해 회사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적
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분명 우리 보험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
내외 시장으로부터 신뢰도를 향상될 것입니다.

끝으로,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틀간의 심포지엄이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